

# '양궁 메카' 광주서 전국 공사들 열전 펼친다

### 10~15일 대통령기양궁대회 개최...역대 최대 135개팀 1000여명 참가 광주시청·남구청·광주은행 등 활약 기대 속 스포츠 도시 브랜드 제고

한국 양궁 주역들이 광주에서 열전을 펼친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광주국제양궁장(리커브)과 남구 효천체육관(컴파운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남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등 총 135개 팀 1000여명이 참가한다. 리커브와 컴파운드로 나눠 사도 대항, 개인전, 단체전, 거리별 승자를 가린다.

2017년부터 '양궁 메카' 광주에서 7년 연속 개최되는 대통령기 양궁대회는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주역들이 출전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도 다양한 기록이 양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국가대표 이승윤과 지난달 열린 올림픽폐기물 제40회 회장기 대학실업양궁대회에서 남자일반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정다위가 포진한 남구청, 국가 대표 기보배를 선두로 회장기 대회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광주시청, 국가대표 최미선이 장단범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광주은행 '텐텐 양궁단'이 일반부에서 '금빛 시위'를 당긴다. 대학부에서는 국가대표 안산과 오예진이 포진한

'국내 최강' 광주여대, 이원주의 활약이 기대되는 조선대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고등부에서는 지난달 열린 2023 아시아양궁연맹 아시아컵 3차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화랑기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에서 개인전과 혼성단체전 2관왕에 오른 조수혜(광주체고)가 다관왕 도전에 나선다.

10일 오후 3시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가 진행되며 15일에는 특설무대에서 전 종별 개인·단체·혼성 단체전 결승전이 치러진다. 결승전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도시 광주는 양궁 월드컵, 대통령기 등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 브랜드 제고는 물론 양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시양궁협회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7일부터는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제34회 전국 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국 양궁 미래의 양궁 꿈나무들의 축제인 초등 대회에는 전국에서 3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광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35개팀 1000여명이 참가해 열전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대회 모습. <광주시 양궁협회 제공>

일간 갖고 뒤은 실력을 겨룬다. 대회는 1440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단체전, 거리별 경기로 승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에 광주는 유춘초, 성전초, 염주초, 두

암초, 문산초, 삼정초 등 6개 팀 28명이 출전한다. 특히 대회 기간에는 '양궁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선수들에게 식음료를 제공,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운다. 양궁 선수 학부모들

이 주축을 이룬 '양사모' 회원들은 매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며 선수들의 든든한 응원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체육회, 종목단체 활성화 행정지원체계 구축

### 행정지원 통합사무실 개소 현판식 전갑수회장 "긴밀하게 소통할 것"

광주시체육회가 종목 단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왼쪽에서 네번째)는 6일 국민생활관 2층에서 '종목단체 행정지원 통합사무실' 개소 기념 현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전갑수 체육회장, 김영삼 사무처장, 전무이사협의회 박도성 회장을 비롯한 종목단체 전무이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사무실은 체육회가 종목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종목단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공간은 열악한 환경과 행정사무원 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한 78개 종목단체를 위한 인프라다. 보조공급리시스템 운영, 각종 행정업무 처리, 회의 공간 활용 등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된다. 민선 2기 체육회 공약사항 중 종목단체와 전무이사들의 화합을 위한 사무공간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다.

체육회는 종목단체 관계자들의 친목 강화와 교류의 장은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종목단체 간 정보 공유와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가 6일 종목단체 행정지원 통합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갑수 체육회장은 "종목단체 행정지원 통합사무실을 통해 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꾸준한 지원을 통해 종목단체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체육회의 공간인 종목단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다"며 "체육회의 공간인 종목단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한국 아시아 여자주니어 핸드볼선수권 4연승

### 조 1위로 4강행...결승 진출 놓고 오늘 대만과 격돌

한국이 제17회 아시아 여자주니어핸드볼 선수권대회 조별리그를 4전 전승으로 마쳤다.

한국은 5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조별리그 A조 4차전에서 쿠웨이트를 36-14로 대파했다.

4승, 조 1위로 4강에 오른 우리나라는 7일 B조 2위 대만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 준결승 대진은 한국-대만, 중국-일본으로 정해졌다.

또 우리나라는 이 대회 상위 5개 나라에 주는 2024년 북마케도니아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출

전권도 따냈다. 한국은 이날 한 수 아래인 쿠웨이트를 맞아 김의진(SK)이 5골을 넣는 등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쳤다. 앞서 열린 16차례 아시아 여자주니어선수권에서 한국은 불참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15번을 우승했다.

2022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회에 가지 않았다. 이번에 우승하면 15회 대회였던 2019년 이후 4년 만에 패권을 탈환한다. /연합뉴스

2022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회에 가지 않았다. 이번에 우승하면 15회 대회였던 2019년 이후 4년 만에 패권을 탈환한다. /연합뉴스

## '절대 1강' 바둑 신진서 9관왕 등극

### 신민준 꺾고 YK건기배 우승

43개월째 한국 바둑랭킹 1위를 지킨 '절대 1강' 신진서(23) 9단이 9관왕에 올랐다.

신진서는 지난 5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3 YK건기배 결승5번기 3국에서 신민준(24) 9단에게 162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앞선 1, 2국도 승리했던 신진서는 종합전적 3-0으로 YK건기배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신진서는 삼성화재배, 춘란배, 국수산맥(국제), GS칼텍스배, 쏘팔코사놀, KBS바둑왕전, 용성전, 맥심커피배 등에 이어 YK건기배까지 차지하며 9개 대회의 타이틀 확보했다.

입단 후 통산 우승 횟수는 32회로 서봉수 9단과 공동 5위가 됐다.

신진서는 지난해 YK건기배에서 4위에 그쳐 시드를 받지 못한 탓에 올해는 예선부터 출전했다.

신진서가 예선에 출전한 건 2018년 7월 제20회 농심산라면배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예선에서 류민형 8단, 안성준 9단을 연파하고 본선에 오른 신진서 9단은 8인 리그에서 6승 1패를 기록,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신민준과 6번째 결승전을 치른 신진서는 YK건기배 우승으로 결승맞대결에서 5승 1패로 앞섰다. 통산 상대 전적도 31승 10패로 크게 앞섰다.

대국 후 신진서는 "지나가는 본선 리그 초반에 많이 지면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나와 잘 맞는 피셔방식으로 바뀌면서 관찰계 흘러갔다"라며 "결승 1국에서 어려운 바둑을 이기면서 기세를 탔던 게 우승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당구 강자' 최성원 PBA 첫승 또 불발

### 위마즈에 져 128강서 탈락

한국 아마추어 3구 무대를 주름잡고 프로당구 무대에 뛰어든 최성원(휴온스)이 데뷔 첫 승을 다음 대회로 미뤘다.

최성원은 5일 밤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3-2024시즌 2차 투어 '실로드&안산 PBA-LPBA 챔피언십' PBA 128강전에서 튀르키예 출신의 강호 비를 위마즈(웰컴저축은행)에게 밀리며 탈락했다.

최성원은 하이런 10점을 몰아치며 1세트를 15-2로 먼저 가져갔으나 2, 3세트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위마즈에게 2-15(3이닝), 0-15(3이닝)로 제 역전을 허용했다. 다시 4세트를 15-10으로 만회해 세트 점수 2-2를 만든 최성원은 승부차기에서 0-4로 패해 대회를 마감했다.

최성원은 지난달 열린 1차 투어에서도 박한기에 1회전에서 1-3으로 패배한 바 있다.

전날 '당구 4대 천왕' 다니엘 산체스(스페인-에스아이)가 1라운드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성원까지 져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은 '신입 강호' 두 명의 프로 무대 첫 승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점차 적응해가며 경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은 위안거리다. 기존 강호의 희비도 엇갈렸다.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웰컴저축은행)과 조재호(NH농협카드)는 나란히 64강에 합류했고, 다비드 사파타(스페인-블루원리조트)는 무명의 박기명에 밀리며 탈락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LPBA 32강전에서는 임정숙(크라운해태)을 비롯해 강지은(SK랜타카), 정예린, 장기연(이상 휴온스) 등이 16강에 올랐다.

1차 투어에서 스롱 피아비를 꺾었던 장해리는 이번 대회에서도 히다 오리에(일본-SK랜타카)를 눌러 '강호 길러' 면모를 뽐냈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즐거움 문화 산책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엘리멘탈, 범죄도시3
- 2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라방
- 3관 범죄도시3,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 4관 귀공자, 플래닛
- 5관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악마들, 빈틈없는 사이, 라방
- 6관 엘리멘탈, 기적을 믿는 소녀
- 9관 여름날 우리, 풍채가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 7관 씨네마천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1986 그 여름, 그리고 고등어통조림
- 8관 씨네마천 인디애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보이스 어프레이드, 여름날 우리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원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